

광주 학교급식 친환경쌀 구매량 '뚝뚝'

대대적인 쌀소비 촉진 운동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 쌀의 구매량은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수 감소와 식습관 변화에 따른 것으로, 쌀을 이용한 간편식을 중심으로 아침급식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329곳을 대상으로 올해 급식용 친환경쌀 구매계획을 조사한 결과, 모두 2410t으로 집계됐다.

2016년 2900t이던 것이 3년 만에 490t(16.8%)나 감소한 것이다.

연도별 계획구매량도 2016년 2900t, 2017년 2760t, 2018년 2660t, 올해 2410t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실제 소비량 또한 2016년 2623t에서 2017년 2452t, 지난해 2253t으로 3년 새 370t, 비율로는 14.1% 감소했다.

학생 1인당 소비량도 2016년 69g에서 이듬해 71g으로 반짝 증가했으나 다시 2018년 70g으로 줄었고 올해는 67g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급식의 기본식재료인 쌀 구매량이 이처럼 줄어든다는 학생수 감소와 식습관 변화, 잡곡 사용량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학생수 경우 2016년 326개교 21만1257명이던 것이 2017년 327개교 20만4598명, 2018년 328개교 19만7204명, 올해 329개교 18만8842명으로 매년 3% 안팎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 등 '인구 절벽'의 여파로 풀이되지만 빵이나 라면 등 인스턴트 음식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늘면서 쌀 소비 감소율은 학생수 감소율을 크게 웃돌고 있다.

더욱이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면서 유치원생이 감소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전체 학생수 감소로 쌀 소비량도 줄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교육계 일각에서는 아침급식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처음으로 전국 15개 초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쌀로 만든 아침 간편식을 제공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 중이며, 아침식사 확대 방안 모색을 위한 관련 토론회도 잇따라 열리고 있다.

전남교육청도 무상 아침식사를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소요예산은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동시 시행할 경우 연간 458억원(식품비 367억, 인건비 91억)으로 추산되고, 군(郡) 지역을 기준으로 하면 12억7000만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원 마련이 어

유·초·중·고 계획구매량-소비량 10% 이상↓ 학생수 감소-식습관 변화 영향...아침급식 주장도

려울 경우 결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농어촌지역에서 우선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식습관 변화로 국민 1인당 쌀소비량이 1970년 136kg에서 지난해 61kg으로 반토막

났고, 학생수까지 줄면서 소비량은 날로 줄어만 가고 있다"며 "청소년기 건강과 농가소득 안정, 식습관 개선 차원에서 쌀소비량을 늘릴 필요가 있고, 아침급식도 좋은 대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오늘은나도 광복군

어린이날 연휴 마지막 날인 6일 서울 여의도공원에 조성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공간인 'C-47 비행기 전시관'에서 임정 수립 100주년 기념 특별전 '비행기 드라마 C-47 특공대'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5·18 39주기 보수단체 폼페이 집회 예고 경찰 '긴장'

물리적 충돌 가능성...경비 강화하기로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보수단체가 광주에서 5·18 폼페이 집회를 예고하면서 5·18 기념식 경비를 맡고 있는 경찰이 긴장하고 있다.

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18일 보수성향 단체가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앞 삼거리와 동구 금남로 5가에서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촉구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5·18민주묘지 앞(18일 오전 10시)과 금남로 집회(18일 오후 1시~오후 4시)에는 각 20여 명과 15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보수단체는 금남로 집회 뒤 총장로를 따라 행진할 계획이다. 같은 시간대 5·18 민주광장과 금남로 1~4가에서는 39주기 추모행사가 열린다.

5·18 당일 광주에서 5·18을 부정· 폼페이하는 집회가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금남로는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이 신군부의 국가폭력에 맞서 헌정질서를 수호하다 계엄군 총탄에 사상당한 곳이다.

17일엔 전남대학교 후문에서 보수단체의 유공자 명단 요구 집회도 예고돼 있다.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송방망이 징계 등으로 5월 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5·18 기념식 참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광주시민사회 일부가 경계 대응 입장을 밝히면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이에 경찰은 경비를 강화할 방침이다. 북부경찰서는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5·18기념식에 참석했을 때보다 많은 경찰력을 투입할

계획을 세웠다.

동부경찰서도 지난 3일 5·18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집회 안전 관리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념식에는 경찰관 3000~4000여 명이 상이 동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5·18 39주기 관련 행사와 기념식 동향을 살피며 구체적인 경비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5·18단체가 성숙한 대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민일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 기념식이 순조롭게 치러질 수 있도록 경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5·18 유공자 명단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법원 역시 5·18 유공자 명단 공개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신봉우 기자

진도서 만취 20대 택시 충돌 6명 사상

연휴 기간 택시를 타고 고향집에 가던 일가족 중 2명과 택시기사가 음주차량에 치여 숨졌다.

6일 진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40분께 진도군 의신면 침계리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박모(29)씨가 몰던 승용차량이 마주오던 A(58)씨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A씨와 승객 B(59·여)씨, C(58·여)씨 등 3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택시에 타고 있던 B씨의 남동생(56)과 다른 승객 1명, 박씨 등 3명도 중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이다.

박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0%(운전 면허 정지 수치)로 확인됐다.

B씨 납매 등 일가족은 이날 진도 고향집에 방문하려고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승객 진술로 미뤄 술에 취한 박씨가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충격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치료를 마치는대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진도=조성용 기자

영암 농로서 경운기 뒤집혀 70대 사망

5일 낮 12시2분께 영암군 신북면의 한 농로를 따라 운행 중이던 경운기가 뒤집혔다.

이 사고로 운전자 A(76)씨가 경운기에 깔린 것을 주민이 발견해 119에 구조 신고를 했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골바로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몰던 경운기가 농로에서 뒤집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고압선에 추락한 패러글라이더 신속 구조

조종사 1명이 탄 패러글라이더가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신주에 추락해 걸려 있다가 119에 의해 신속하게 구조됐다.

5일 낮 12시께 장흥군·읍 사자산 정상 부근에서 이륙한 진모(47)씨가 탄 패러글라이더가 금산저수지 인근의 약 5m 높이 고압 전신주 전깃줄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패러글라이더는 이륙 후 1시간 20여분간 활공을 하다 갑자기 균형을 잃고 추락해 전깃줄에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진씨는 패러글라이더가 전깃줄에 걸리자 오후 1시26분께 119에 직접 구조 요청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특수구조차와 사다리차 등 대원 17명을 투입해 20여분만에 진씨를 무사히 구조했다.

장흥=송호빈 기자

'직원 통장 슬쩍' 병원 상습털이 40대 영장

광주 북부경찰서는 3일 상습적으로 병원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아간건 조물 침입죄)로 A(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20분께 광주 북구 한 병원 9층 영양실에서 책상 서랍 열쇠를 찾아 7만원을 가져가는 등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지역 병원 2곳에서 통장 등을 훔쳐 수차례에 걸쳐 1073만 원을 인출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병원에서 몰래 노숙 생활을 하던 A씨는 직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병원 직원이 특정 공간에 서랍 열쇠나 사무실 출입 열쇠를 보관하는 것을 눈여겨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휴가 중인 직원의 통장과 비밀번호가 적힌 수첩을 훔쳐 돈을 인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공동체지원사업 후원기관 湖南新聞 062)224-5800 062)222-5548

광주상공회의소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